

28. 맹수들 모양으로 예언된 역사(3)

2012. 7. 0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의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중에서 셋째 짐승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넷째 짐승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듣기에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탁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7:7,8]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맹수들 중에 세 마리 맹수의 실체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표상하고, 곰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머리가 넷이 달리고 새 날개 넷이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를 표상한다는 사실까지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네 번째 짐승의 실체부터 말씀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먼저 성경의 설명을 읽도록 하지요. 다니엘 7:8,9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7:7,8]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짐승이지요. 다니엘이 보았을 때 지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짐승의 생김새를 보세요. 머리에는 뿔이 열 개나 달렸습니다. 이는 철이고, 발톱은 놋인데, 먹고 부숩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다니엘이 유심히 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 뿔 보다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열 뿔 사이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눈을 가졌고 크게 말하는 입도 있습니다.

7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은 작은 뿔에 대한 것입니다. 7장은 그리 긴 장이 아닌데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8절, 20절, 2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뿔의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를 보는 다니엘에게 작은 뿔과 그것이 행하는 일이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2. 넷째 짐승과 그 뿔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짐승의 생김새와 작은 뿔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지 않습니까.

답: 예, 이미 애청자들께서 이 넷째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의 실상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였지요. 당연히 넷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단7:23에서 해석해 주는 천사가 말하지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요. 그것은 제국 로마입니다. 이 나라는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476년까지 긴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앞의 세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한 모든 기간보다 더 오래도록 세계를 지배했지요. 제국 로마는 참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후에 기원전 168년 마케도니아를 보호령으로 굴복시키면서 제국 로마의 기틀이 놓였습니다. 이 짐승은 **큰 철 이가 있어 먹고 부숩뜨리고 나머지는 짓밟았는데**, 이것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로마의 파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장 40절에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숩뜨리고 빵을 것”이라고 기록하여 이 넷째 나라가 같은 나라란 사실을 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요. 영국의 역사가 Edward Gibbon은 그의 유명한 책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1권, 99, 100)라고 기록했고 “공화국의 군대는 가끔 전투에서 지는 때는 있었으나,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며 빠르게 유프라테스, 다뉴브,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 승승장구로 나아갔으며, 나라들과 왕들을 표상한 금, 은, 놋의 신상들은 이 로마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 연속적으로 부서졌다.”고 기록하여 역사학자로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로마 제국이 철 나라임을 시인하였고 먹고 부숩뜨린 모습을 잘 기록했습니다.(3권, 634) 기본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시인한 역사가이지요. 그의 이 책은 로마역사의 고전입니다. 역사학도들을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했는데요, 로마가 백성을 죽이거나 정복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를 밟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 나라의 변모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 7,8절에 다니엘이 본 사실을 설명해준 것이 19~25절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 내용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19~25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3. 역사가 기본의 설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정말 역사학자가 성경의 기록을 그의 저술에서 가감 없이 인용했다는 것이 참 흥미 있습니다. 그러면 19~25의 말씀을 듣기로 하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기본은 다니엘 2장에 대하여서 2500년간 역사를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말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말을 한 학자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7:19~25]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숩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

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
 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숩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
 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지켜야할 원칙이 있거든요. 첫째는 기록된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찾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예언이 성취
 된 역사적 사건을 아주 주의해서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본문에 있는 것과 다르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죽으
 리라는 말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아
 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했으니깐요. 예언 해석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 설명했습니다. 짐승은 나라,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
 과 방언과 백성, 바람은 전쟁 등. 이런 해석은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을 찾아서 해석한 것이
 지요. 이제 이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19~25의 말씀을 설명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4. 다니엘 7:19,20을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보다 그 머리에 있는 열 뿔과 그 열 뿔보다 나
 중에 나온 작은 뿔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
 실 때 작은 뿔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겠지요?

답: 그렇지요. 아까도 말했듯이 작은 뿔에 대한 말이 세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을 통
 하여 가르쳐주시는 것의 핵심 문제는 작은 뿔과 그것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9,20에 나타
 난 사실을 간단히 살펴보지요. 넷째 짐승의 생긴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7,8의 내용을 빈복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7,8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말했거든요. 그런데 7,8에 없는 말이 있는데, 나중 나온 뿔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뿔에 대
 한 기록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넷째 짐승의 모양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른 모습이 대강 8가지 상태로 묘사
 되어 있군요.

- ① 심히 무서움 ② 이는 철임 ③ 발톱은 늦임 ④ 머리에 열 뿔이 있음 ⑤ 나중에도 한 뿔이 나
 옴 ⑥ 세 뿔이 나중 나온 뿔 앞에 빠짐 ⑦ 나중 나온 뿔에는 눈과 입이 있고 다른 뿔보다 강함
 ⑧ 이 뿔이 성도와 싸워 이김.

이 묘사에서 철로 된 이가 있다는 것은 2장의 철나라와 같은 나라임을 확인해주는 것인데, 발톱
 이 늦입니다. 늦은 2장 위상으로 보여준 세계 역사에서 헬라지요. 이것은 로마가 그 기초에 헬라
 의 영향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로마가 정치적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

는 헬라에게 정복되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표상은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아직도 세계 문화의 주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은 구주가 오실 정지작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5. 목사님, 잠깐만요. 로마가 헬라 문화에 정복된 것이 구주가 오실 정지작업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 그렇겠네요. 갈라디아 4:4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다니엘 9장의 예언과 관계된 말씀인데,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구주가 오실 역사적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속히 널리 전하는데 아주 편리해졌지요. 또 로마가 길을 잘 닦았고, 치안이 잘 되어서 교통이 좋고 평안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로마를 석권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언어 문제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실 일을 하십니다.

6. 예, 목사님,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문화 말살 정책을 써서 헬라어를 국제 공용 언어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복음 전파가 훨씬 더디었을 것이라는 뜻이네요.

답: 예,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각각 자기 나라 말과 글로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옛날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옛날 사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착각을 자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문화가 구원의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7. 말씀을 들어보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작은 뿔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넷째 짐승 발톱이 늦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중에 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 그래요. 이 짐승은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여 생각해야 하겠지요. 다니엘 8장에 보면 짐승에게서 나온 뿔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에서 분열되어 건국되는 나라를 표상합니다. 8:22을 읽어보실까요?

[단8: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짐승에게서 나온 뿔이 바로 분열된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 개의 뿔은 넷째 나라인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열 개의 나라들을 표상하지요. 이것은 2장 우상의 열 발가락과 같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로마

가 통치하던 영토 안에 일어난 나라들인데, 게르만 민족들의 국가들입니다. 로마는 게르만민족 대 이동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망했습니다. 476년에 동고트 족에 의하여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축출됨으로 장장 600년이 넘는 통치에 종언을 고하게 되었지요. 2장 이야기를 할 때 말 했지요. 그 후로는 그런 통일 제국이 그 지역에 나탄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유럽 여러 나라들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입니다.

8. 열 뿔이면 열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한 나라는 모두 일곱인데 요? 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답: 그것이 원래는 헬롤리 족의 나라와 반달 족의 나라와 동고트 족의 나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7장에서 보니까 작은 뿔 앞에 세 뿔이 뿌리 채 뽑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주 망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는 그 세 나라가 없지요.

9. 작은 뿔이 얼마나 강했길래 세 나라가 뿌리 채 뽑히게 되었나요?

답: 다니엘이 동류보다 강해보였다고 기록했지요. 이제 그 작은 뿔의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생김새에 대한 것입니다.

I. 이 뿔의 모양

- ① 다른 뿔보다 나중에 나옴
- ②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음
- ③ 큰 말하는 입이 있음
- ④ 동류보다 강하여 보임
- 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름

II. 이 뿔의 행사

- 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짐
- ②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함
- ③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와 싸워 이김
- ④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
- 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힘

이상의 모양과 행사의 모습을 통하여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 ① 나오는 곳: 넷째 나라인 로마에서 나온다.
- ② 나오는 때: 넷째 짐승에서 열 뿔이 나온 후, 즉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열나라가 일어난 후에 나온다.
- ③ 나라로서의 성질: 열 나라와 같은 면과 다른 면이 있다.

열나라는 정치적 왕국뿐이나 이 뿔(나라)은 눈과 입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고, 입은 말을 하지요. 이 나라는 살펴보며 명령하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국정을 살피고 백성들을 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 예언에서 이 말은 당연한 일반적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나라들을 살피고 나라들을 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입니다.

④ 하나님과의 관계: 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

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 모습 중의 하나이지요.

⑥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싸워서 이긴다.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 모습 중의 하나지요.

⑦ 전성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세력을 떨친다.

⑧ 최후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한다.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세 원칙에 의해 이 뿔의 역사적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세 원칙은 ① 예언의 내용을 잘 읽을 것. ② 그 내용의 성경의 해석을 찾아볼 것. ③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역사에서 주의해서 찾을 것 등이지요.

이제 말한 여덟 가지 성질의 나라를 역사에서 찾으면 하나만이 이 사실들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때와 법을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교적 세력이면서 또한 정치적 세력으로 나라까지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오직 한 세력만이 이 사실들에 꼭 들어맞는데요. 애청자들께서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에 편승하여 하나의 종교적 조직이 정치적인 세력을 겸하는 제국의 형태로 발전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정치적 왕국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① 로마시가 대제국 로마의 수도요, 문명의 중심지였으므로 그곳에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들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② 로마에 있는 교회는 서방 교회들 중에 사도가 친히 설립한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되어서 로마의 감독이 우월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③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가 정치적 수도를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로 옮기므로, 로마 감독을 제국의 지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했으며, 그 후로 다른 지방 감독들과 의견이 상치될 때는 황제가 로마감독을 지지하였다.

④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칙령으로 로마 감독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였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남 교수가 지은, 세계사, 79쪽에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 교황 레오(Leo) 1세는 훈족 왕 아틸라(Attila)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452), 대 교황 그레고리(Gregory) 1세는 롬바르드(Lombard)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 보았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A. G. Flick,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1900년판 15)

10. 목사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로 역사의 진행을 자세히 가르쳐주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로 올바르게 깨닫고 말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진행이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관계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전적인 신뢰로 성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